

영국 안전보건청(HSE), 2010/2011년도 산업재해 및 질병 통계 발표

- 영국

주요내용 요약

▶ 업무상 질병

- 업무(현재 및 과거의 직업)와 관련된 원인으로 하여 작년 120만 명의 근로자가 질병으로 고통 받은 것으로 집계됨. 이 중 30만 명은 질병의 증상이 지난 1년 내에 처음 나타났음.
- 일을 중단한지 1년이 넘는 근로자 중 70만 명은 과거의 업무와 관련있는 원인으로 인해 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남.

▶ 업무상 상해

- 동 기간동안 171명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 이는 근로자 10만명 당 0.6명의 사망률임.
- 영국 RIDDOR(상해 및 사고 발생보고규정)에 따라 보고된 재해자 수는 115,379명이었으며 이는 근로자 10만명당 462.1명의 비율로 발생한 것임.
- 보고대상인 사고성 재해는(근로손실일수가 3일 초과하여 발생하는 재해) 200,000건 발생하였으며 이는 근로자 10만명 당 710명의 비율로 발생한 것임.

▶ 근로손실일 수

- 총 2,640만일의 근로손실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발생한 업무관련성 질환 및 재해 1건 당 평균 15일의 근무 손실일을 의미함.
- 업무관련성 불건강(gill health)로 인해 2,210만 일의 근로손실일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성 재해로 440만 일의 근로손실일이 발생함.

업무상 질병

▶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 질병

- 매년 수천명의 사람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는데 대다수는 여러 해 전 노출된 유해요인으로 사망하였음.
- 영국에서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매년 약 8,000명으로 추산됨.
- 직업성 암 사망자 중 4,000명은 석면노출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음.
- 만성폐쇄폐질환(COPD)의 15%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매년 4,000여명의 영국인은 업무 중 증기, 화학물질, 분진 등에 대한 노출이 주 원인인 만성폐쇄폐질환으로 사망함.
- 악성종괴종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1968년 153명에서 2009년 2321명으로 크게 증가함. 악성종괴종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6년 2100명으로 최고수준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됨.

▶ 의사가 보고하는 업무상 질병

- 2005년부터 300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업무관련성 질환에 대한 보고를 접수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흔한 질환으로 나타났다으며,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가장 많은 업무손실일을 발생시켰음.

사고성 재해

년도	중대상해	중대상해 발생률 (근로자 10만명 당)	근로손실일수 3일 초과발생 재해	근로손실일수 3일 초과발생 재해를 (근로자 10만명 당)
2006/2007	28,544	113.5	114,653	455.8
2007/2008	28,199	111.1	110,054	433.8
2008/2009	27,894	109.4	105,261	412.8
2009/2010	26,268	104.8	96,427	384.7
2010/2011	24,726	99.0	90,653	363.1